

나의 활동이 기념사업이 된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나 사업 종료 후 신청합니다.



인증사업, 어떻게 참여하나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이벤트 등의
사업 종료 후 홈페이지나 이메일,
방문 및 우편으로 인증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참여사업(인증사업) 예시

- 역사교육 캠페인
- 독립운동 관련 사업
- 문화·예술 활동
- 각종 동호회 활동

홈페이지 위원회 홈페이지 together100.go.kr 접속 **100년 참여마당 메뉴에서 '국민참여 기념사업 인증 신청' 선택**

이메일 together100@korea.kr

방문 및 우편 각 지자체,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로 신청

문의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TEL 02-2100-1449 FAX 02-2100-1446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9년 5월
특별기획 "당신의 이름은 선생님입니다"

Vol. 442. 2019. 5.



"당신의 이름은 선생님입니다"
스승의 날, 교권을 이야기하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민성

Story

MAY 2019 Vol. 442

10



18



COVER STORY

교단에 선 아버지를 따라 아들과 손녀가 대대로 제자들을 가슴에 품었다. 이재춘(86) 퇴임 교사, 이주호(58·아들) 충북 형석고등학교 교감, 이남경(25·손녀) 세종 도원초등학교 교사가 이룬 3대 교육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22

48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0

Contents

특별기획

- 02 특별기획 "당신의 이름은 선생님입니다"
- 0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상 : 위라몬을 추구하는 스승
- 06 내 마음속의 선생님_기고글 ①
- 08 내 마음속의 선생님_기고글 ②
- 10 3대 교육명가를 만나다_이주호 충북 형석고 교감 가족
- 14 '선생님'이라는 이름, 그 무게에 대해 ①
- 16 '선생님'이라는 이름, 그 무게에 대해 ②

현장이야기

- 18 꿈이 영그는 현장 동북아역사재단 선정 2018 독도지킴이학교_경북 울릉중
- 22 삶과 교육 『5월 18일, 맑음』 저자, 임광호 광주 첨단고등학교 교사
- 26 우리교실, 프로젝트 김해 관동초 '우리 마을 수비대' 프로젝트
- 30 아하! 진로체험 경찰박물관 '경찰직업체험교실'
- 32 창업공방 김진호 도구공간 대표

정책이야기

- 34 정책N전망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 36 교육부 JOB 교사로부터 시작하는 교육혁신, 학교 혁신을 주도하는 '교원양성연수과'
- 40 정책 토크 스승의 날, 교편을 이야기하다
- 46 이슈1 2019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 48 이슈2 공간주권을 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
- 50 초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희망하며
- 52 꽃피는 교육자치 강원 / 전남 / 경남 / 세종 / 충청 / 광주 / 부산
- 56 뉴스 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작된다 외

정보이야기

- 58 교육포커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민성
- 62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64 아이의 다락방 우울증에 걸린 아이
- 66 교사상담실 학기 초와 너무 다른 아이들, 어떻게 바로잡죠?
- 68 이야기 인문학 어린이날에 깃든 역사의 교훈
- 70 일상의 침표 너른 바다 동쪽 땅 끝에 서서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다
- 74 세계 속 대한민국 WEST 통해 젊은이여! 세계에 도전하자
- 76 명예기자 리포트 100년 전 그날, 17세 소녀를 기리는 마음 외
- 80 행복 게시판

특별기획

“당신의 이름은 선생님입니다”

1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상

2_ 내 마음속의 선생님

3_ 3대 교육명가를 만나다

4_ '선생님'이라는 이름, 그 무게에 대해

미국의 교육학자인 하그리브스는 오늘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은 과거에 배우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항으로 힘겨웠던 시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나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3대 교육명가 이야기, 그리고 담임을 기피하는 요즘 13년째 담임교사를 하며 '선생님'이란 무게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중견 교사의 이야기 등을 소개합니다. 행복한 교육이 대한민국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교육,이 취재를 통해 만난 수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선생님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상 : 워라몬을 추구하는 스승

2019년 3월 24일, 바키 재단은 케냐 벽지 마을의 피터 타비치(Peter Tabichi)에게 '2019 세계 최고 교사상'을 수여했다. 대부분 학생들은 등교 자체가 힘든 지역에 거주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 십대 임신, 중퇴, 조혼, 자살 등 제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58명, 교육 시설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료교사들과 힘을 합쳐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학업을 도왔다. 그 결과 학생들이 전국 대회만이 아니라 국제 수학·과학 대회에서도 수상 실적을 내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수상 소식과 소감, 그리고 업적을 보며 내가 자랐던 1960년대 선생님들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여름날 아버지께서 마을 사촌 형님과 함께 학교에 찾아오셨다. 운동장 체육시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선생님을 만난 아버지는 나를 데려가려고 오셨다고 했다. 한해(대가 몸)가 들어 끼니를 잇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더 이상 육성회비를 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육성회비를 낼 터이니 '나(남기)'를 두고 가라고 하셨다. 해방과 6·25 직후의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던 내 기억 속의 많은 선생님들은 세계 최고 교사상을 수상할만한 분들이셨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교사의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오늘의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무기력증과 학교폭력, 그리고 가정의 학대 등 아프리카와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돕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

시대가 바뀌어도 스승의 역할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스승에 대해 정의해 놓은 가장 오래된 글 중의 하나인 한유의 사설(師說)에 보면 “스승은 도를 전하고, 도를 익히는 데 필요한 공부를 시키며, 의혹을 풀어주는(傳道授業解惑) 사람”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즉, 스승은 어느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자세와 함께 필요한 제반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는 스승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습 조력자, 안내자,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자 등의 역할에서는 AI를 비롯한 인터넷상의 강사들이 교실 속의 교사를 뛰어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해야 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

교직은 일과 삶이 구분되는 직업이 아니라
둘이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이다.
퇴근 후에 삶을 즐기는 직업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직업이다.



를 갖도록 이끄는 것 등은 인간교사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해주어야 할 핵심 역할이다. 교사도 자신의 밈(Meme, 문화 유전자)을 전파하는 이러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다.

'워라몬' 교직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업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있다. 표현은 균형인데 실제로는 가능한 일을 줄여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30년 가까운 시간 교단에 서고 보니 교직은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몬'(work and life harmony)을 추구해야 할 직업인 것 같다. 교직은 일과 삶이 구분되는 직업이 아니라 둘이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이다. 퇴근 후에 삶을 즐기는 직업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직업이다.

만일 학교생활에는 최소의 노력만 기울이거나 스스로 정한 밥값만 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퇴근 후에 자신의 삶을 찾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도 자신의 일에 만족하기 어렵다. 그러한 교사가 퇴근 후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똥을 향기 나는 종이로 싸서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모든 교사가 성직자처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세상에 보탬이 되고, 자신도 행복하고자 한다면 '워라벨'의 진정한 의미인 '워라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람을 느끼며 존경도 받는 워라몬을 추구하는 스승이 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배움을 즐기며 열정을 지속시키는 '영원한 학생'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며 돈을 버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어서 즐겁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뇌와 뇌 기반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교사들과 공감하며 협동하는 역량, 네트워크 활용 역량 등도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다. 아울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에 맞는 교수법을 찾아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가 열린 세계관과 유연한 적응력을 갖춘 가슴 따스한 세계시민이 될 때, 그 밈을 전파 받은 제자들도 보람 속에서 인정받으며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㉞

내 마음속의 선생님_ 기고글

1

헌신과 사랑이 남달랐던 두 은사님! “당신처럼 되고 싶어 어려움 딛고 교단에 섰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결코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신 잊을 수 없는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다.

‘나도 커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지’

오늘은 들길을 밟듯이 꽃잎같이 진한 그리움으로 은사님들을 회상해보고 싶다.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7남매가 시골에서 살아가기란 매우 힘이 들던 때였다. 지금과는 달리 유난히 말이 없고 내성적이어서 주위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던 학생이었지만 청소시간만큼은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기특했던지 나를 무척 사랑해주셨고 선생님의 사랑과 정성에 감동하여 ‘나도 커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지.’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도 했다.

6학년 때 선생님은 점심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공을 차시며 늘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다정다감하셨던 선생님이 숙제나 일기장 검사를 할 때면 갑자기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들을 잔뜩 긴장시켰

다. 국어 시간에는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리퍼로 교실 바닥을 ‘뿡’하고 굴러서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지금 나도 교사가 되어서 그때 담임선생님께 배운 귀신 이야기를 가끔 써먹어 보지만 우리들만큼 놀라지 않는 것 같아 담임선생님의 이야기 숨씨를 따라가려만 아직 멀었나 보다. 운동장이나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주우셨고 청소시간이 되면 빗자루나 대걸레를 손수 들고 교실도 청소하셨다. 특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매일 친구들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칭찬해주라고 하시면서 착한 일이나 올바른 행동을 하면 일기장에 칭찬 편지도 써주셨다.

졸업식 날, 선생님이 건네주었던 흰 봉투엔...

꿈만 같았던 6학년 생활이 지나고 중학교 입학 원서를 쓰는 날이 다가왔다.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졸업식 날, 우등상으로 사진이나 공책 같은 상품 대신 흰 봉투 한 장을 받았다.



새마을청소년중학교 담임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감사 소풍 때

봉투 속에는 뽀뽀한 천원 권 지폐 3장이 들어 있었다 (당시에는 큰돈으로 기억됨).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제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였다.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새마을 청소년중학교를 다녔다. 학교는 집에서 한 시간 정도를 걸어서 산을 몇 개 넘어야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도 정식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못지않게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었다. 담임선생님은 등산을 좋아하셔서 토요일만 되면 계룡산 자락에 있는 폭포며 암자로 우리들을 데리고 다니셨기에 유격 훈련이라도 받는 느낌이었다.

“애들아, 내일은 간편복 입고 오거라.”

선생님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우리들이 들고 있는 가방 몇 개를 들어주었고 뒤통지는 아이들은 등에 업고 한참을 걷기도 했다. 산 중턱에 오를 때쯤 보름달 빵에 환타로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그것은 꿀맛 그 자체였다. 선생님의 배낭은 보물 보따리였다. 맛있는 간식을 먹는 즐거움에 “선생님, 다음 주에도 산에 와요?”라고 여쭙보면 “그래.”하시며 빙긋이 웃으셨다. 산 중턱에

서의 간식은 1절에 불과했다. 산 정상쯤에 오르면 손수 라면도 끓여주셨다(당시에는 산에서 취사도 했었다).

“우와, 너무 맛있어요.”

“후루룩 찹찹” 소리를 내며 국물까지 시원하게 먹어 치웠다. 배고픈 시절, 빵과 라면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귀한 존재였다.

꿈만 같았던 새마을청소년중학교의 시간이 흘러갈 무렵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공부를 잘했던 제자가 정식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이듬해 정식 중학교에 입학해서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힘이 들면 가끔씩 두 분의 선생님이 불쑥 생각날 때가 있다. 당시에는 모든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물심양면으로 제자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곤 한다.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과 새마을청소년중학교 담임선생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빠 같고 삼촌 같은 부드럽고 편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될 것을 조용히 다짐해본다. ②

내 마음속의 선생님_기고글

2

선생님은 내 삶을 응원해준 고마운 분! 어려움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심어줘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선생님’ 하면 따스한 엄마의 모습이 연상된다. 내게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신 평생의 은인, 감사한 은사님이 두 분 있다. 초등학교 시절, 고개 숙이고 자신 없이 교탁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고개 들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아도 된다고 알려주신 분은 바로 4학년 담임선생님이었다.

교과서를 읽고 싶는데 자신이 없어 손도 감히 들지도 못하고 혼자 터질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쿵쿵 소리를 들킬 새라 더욱 조그라들어 있곤 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발표를 시켜주고,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던 김영숙 선생님.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온 나는 체구가 작고 소심한 아이였다. 4학년 첫날, 고개 들고 이야기하라고, 예쁜 얼굴 보여 달라고 하던 담임선생님의 첫마디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혼나는 것으로 착각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첫인상과 달리, 선생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었다. 나에게 엄마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쉬는 시간에도 꼼짝 않고 교탁 앞 제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발표도 시켜주고,

칭찬도 해주었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느꼈다. 도전과 성취의 재미에 시험공부라는 것을 처음 했다.

가정에 닥친 돌풍에 말없이 안아주던 선생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수능 성적을 올릴까’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던 고3 시절. 우리 집에는 크나큰 돌풍이 불어왔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일기장에 힘들다고 글적적이고 있는 것을 하필이면 그날 담임선생님께 딱 걸렸다. 혼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교무실로 따라갔는데, 선생님은 따스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물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다. 선생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정신에 면담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당시 신도시의 제1회 입학생으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열심히 하려는 나의 모습을 알아봐 주었고 늘 응원해 주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학경시대회에 나가 혼자 힘으로 상을 타오는



졸업앨범 속에 담긴 고3 시절, 감정이었던 커미영 선생님과 친구들

모습을 보고 뿔 듯이 기뻐해 주었다.

선생님 권유로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했지만 서류전형에서 고배의 잔을 마셨다. 선생님은 듣도 보도 못한 학교의 학생이어도 기회를 주어야지 너무하다며 나보다 더 화를 냈다. 폭풍우와 같은 고3 시절을 보냈지만, 선생님이 있어 그 힘겨운 시간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조금 늦게 진로를 고민하던 그때, ‘감히’ 내가 ‘선생님’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사’라는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해 나갔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문득 그리울 때면 뜬금없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꿈꾸던 일(정신과 의사)을 드디어 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처럼 나 자신보다도 더 많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주었다. 허미영 선생님은 그렇게 내 삶을 응원해주고 사랑해 주었다.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던 날. 선생님은 결혼식장에서 고3 시절 눈물짓던 그날처럼 말없이 안아주었다. 제자

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는 선생님은 내 인생을 바꿔준 감사한 분이고, 선생님에게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낸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어있었다.

선생님의 응원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제자

바쁘다는 핑계로 선생님께 자주 연락하지도 찾아뵈지도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선생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가득하다.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선생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달려왔다. 나는 ‘감히’ ‘(마을)선생님’이 되어 학교에 찾아가 전문인 수업을 하곤 한다. 나의 따스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틈틈이 학교로 찾아간다. 이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왜 시간을 내어 수업에 와 주느냐는 선생님들의 질문에 빙그레 웃음으로 넘긴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선생님은 퇴임을 하고, 나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이 긴 시간을 함께하며 내 마음속의 선생님은 아름드리나무처럼 더욱 크게 자리를 잡았다. 선생님이 퇴직하시던 날. 그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음속에서 나는 여전히 19살 고3 학생이고, 선생님은 당시의 젊은 모습이였다. 퇴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몰래 보낸 꽃바구니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고 얼마나 올렸는지 모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저와 수많은 학생들이 사랑받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②

3代 교육명가를 만나다. 이주호 충북 형석고 교감 가족 “바른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선생님으로 이끌었죠”



1

- 1 집 앞마당 벤치에서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함께 보고 있는 이주호 교감 가족. 왼쪽부터 이남경 교사, 이주호 교감, 이재춘 퇴임 교사
- 2 이재춘 퇴임 교사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지도에 가장 열정을 쏟은 모형 비행기
- 3 이주호 교감은 언론에 보도된 아버지의 지도 모습을 액자로 만들어 소중히 보관 중이다.



2

3

5월 스승의 날 3대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다.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 교단에 선 아버지를 따라 아들과 손녀가 대대로 제자들을 가슴에 품었다. 1957년부터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잇고, 이제는 딸이 그 길 위를 함께 걷기 시작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3대째 스승의 길을 걷는 이들의 나침반이 되었다. 이재춘(86) 퇴임 교사, 이주호(58·아들) 충북 형석고등학교 교감, 이남경(25·손녀) 세종 도원초등학교 교사가 이룬 3대 교육가족의 이야기다.

“화선당(和善堂)은 항상 화목하고 선량한 기운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있는 한 문 선생님께서 우리 가족을 오랫동안 보시고 지어주셨지요. 율곡 선생님의 말씀인 ‘화선지기(和善之氣)’의 뜻을 담아 당호를 써 주셨어요.”

대대로 교육자를 길러낸 집안으로 이들 교육가족은 이미 지역 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이주호 교감은 “오랫동안 4대가 모여 살았다.”며 요즘 흔치 않은 집안이라고 웃는다.

여든이 넘는 이재춘 어르신은 집안의 기둥이다. 어린 시절 호된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도 교사로서 ‘바름’과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겼다. 그래서일까. 2남 2녀인 자식들은 모두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 교감이 된 큰아들과 부부 교사인 둘째 아들 내외, 큰딸은 중등 수학교사로, 작은딸은 대학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 중이다. 손녀딸은 할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교단에 선 지 3년 차 된 새내기 선생님이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웃음). 특별한 건 없어요. 단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자녀들을 앓혀 놓고 오랜 시간 무언가를 가르쳐 온 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제자들을 보듬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익힌 것일 뿐. 손녀인 이남경 교사는 “어릴 때부터 본 두 분의 삶이 그대로 몸에 뱀다.”고 했다. 솔선수범(率先垂範)은 대대로 교육자를 만든 비결이 아닐까.



매일 새벽 5시 출근길에 나선 교사... 모형항공기와 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도 '열정'

“한 달 월급을 밀가루, 강냉이, 우유가루 등 포대로 받았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어려웠을 때라 모두 그랬지요. 28~30원 정도인데 하숙비, 용돈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이재춘 퇴직 교사는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1957년 처음 교단에 섰다. 사범학교가 본격적인 교사양성기관으로 자리 잡기 전, 그는 초등교원양성소를 통해 준교사자격검정고시로 입직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만 아이들의 성장은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특히,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던 그는 모형항공기 제작 지도에 많은 열정을 쏟았다. '79년 처음 열린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에 이듬해부터 출전, 이후 수많은 모형비행기대회 수상을 이끌었다.

“아이들과 함께 모형비행기를 만들어 아침마다 연습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 새벽부터 공터에 나가 지도하는 일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즐거웠지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면 방과 후 다시 모여 모형비행기를 만들고 아침엔 또다시 공터로 갔죠.”

20여 년 가까이 새벽 5시엔 출근길에 올랐던 이유였다. 손녀는 “어릴 때 선생님은 다들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교사가 된 지금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낀다.”며 “수업하고 업무처리 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도 없을 때라 그에게 ‘열정’만이 원동력이었다. 이후에는 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도로 아이들 역량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때문에 '99년 퇴직하고서도 5년 더 학교에 남아 아이들 모형항공기 등 과학 발명품 지도를 도왔다. 2004년에는 손자가 제26회 전국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러한 열정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교직의 길을 선택했다.

“선생님은 아무리 어렵도 ‘선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행동해야 하지요. 바른 사람,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한 건 ‘바른 사람’만 돼라는 말이었어요.”

이재춘 퇴임 교사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왕’... 7년간 봉사활동 이끌며 제자 사랑

이주호 충북 형석고등학교 교감



이주호 교감은 윤리를 전공하고 교단에 섰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으로 그는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지도는 제게 언제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스승으로서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지요.”

이 교감은 2009년부터 형석고에서 ‘단지사랑나눔’ 봉사동아리를 지도해 왔다. 7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 주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고. 딸인 이남경 교사는 “제자들이 아빠 얼굴을 더 많이 봤을 것”이라고 웃는다.

가족들 입에서 “학교 일이 언제나 1순위”라며 타박을 듣다가도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사셨고, 형제들도 모두 교직에 있다 보니 “이해한다.”는 말로 되돌아온다.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다. 교사가 된 지금은 더욱 그렇게 느낀다.”는 딸이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제자인 언니, 오빠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닌 탓에 교사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 왔다. “제자들로부터 편지를 많이 받는 인기남이다.”는 딸은 “곶은 일 마다 않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걸 보고 배웠다.”라고 말한다.

이 교감은 올해 뜻깊은 기록도 세웠다. 헌혈 168회의 기록.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수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된다는 믿음의 실천이다.

이남경

세종 도원초등학교 교사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우며 교사로 성장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일이 가장 훌륭한 길이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제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것난아기 때부터 말씀하셨다고 해요(웃음). 지금은 그 말씀에 무척 감사하고 있죠.”

올해 교직경력 3년 차인 이남경 교사는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룬 장본인이다. 아버지 뒤를 이어 교사가 되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단연 할아버지였다고.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이주호 교감은 말한다.

“어린아이들하고 생활하셔서 그런지 또래 분들보다 활기가 넘치셨어요. 아이들 기를 받아서 젊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교단에 선 후에는 일이 어려워도 먼저 나서서 하는 선생님이 되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잘

해야 한다고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에는 교육 문제로 일대 토론이 벌어진다. 학교, 교실, 아이들 이야기 등등. 가정교육부터 청소년 문제, 결혼가정 등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면 교사로서 한 뼘은 커진 느낌이라고 했다. 특히, 새내기 교사들이 잘 모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서도 이 교사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헤아려야 한다고 조언해주세요.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든든한 교육가족이 힘이 됩니다.”

방학 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교육가족만의 큰 장점이다. 다만, 교직 사회를 벗어나면 “사회 물정에 어두울 수 있다.”라고 귀뼉하기도 한다. ☺



지난해 교육령가로 수상한 표창장(위)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며 수상한 각종 감사패들(아래)



‘선생님’이라는 이름, 그 무게에 대해

①

나의 교직생활은 한마디로 ‘고3 담임’ “교직의 꽃은 담임입니다”

“선생님은 고3 담임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고3 담임만 13년 했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3년 동안 고3 담임을 했다고 하면 많은 동료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본다. 나의 교직생활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면 고3 담임이다. 초임부터 고3을 가르치고 교과가 주로 고3에 배정되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경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생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경로였다고도 할 수 있다. 나름 어렵고 힘든 점이 있는 업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자리라 생각했기에 항상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1

런데 왜 이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일까. 개인사정으로 또는 삶의 주기에 맞추어 담임을 맡기에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교직에 만연한 담임 기피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근본 원인을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

동료교사들에게 ‘담임을 왜 하기 싫어할까?’라고 질문했더니 ‘난 업무부서보다는 차라리 담임이 좋아’라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었다. 그 당연함에는 ‘어린 아이 육아와 병행하기 힘들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1차적 책임을 모두 담임이 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무거워’, ‘학부모와의 관계가 힘들어’, ‘아이들과의 관계형성과 감정교류가 힘들어’, ‘교권보호는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되는 것 같아서 무기력감이 느껴질 때가 많아’ 등이 주된 이유였다. 여성, 엄마이기에 겪는 일과 육아의

교직에 만연한 담임 기피 현상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내 인사자문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새 해 업무 희망원을 받아 최대한 개인이 희망을 반영하여 업무 배정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담임 희망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담임을 희망한 선생님의 수는 총 11명이었다. 올해 우리 학교 필요 담임교사는 40명이다.

담임 ‘불희망’을 하신 분들도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임을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희망’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일단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 짐작이 된다.

신규 임용이 되면 선배 선생님들에게 듣게 되는 여러 교직 생활에 대한 격언 같은 말이 있다. ‘교직의 꽃은 담임이다.’ 그

‘선생님, 많이 상처받으셨군요. 그런데 교직을 정말 그만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 상처를 가장 잘 치유하는 방법은 아마도 결국 다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어려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임 기피 이유는 ‘학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요구받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준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교사는 하나의 단순한 직업군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이상의 윤리의식을 요구받는다. 유교문화의 역사적 배경이 그러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에 오랜 시간 그것을 무겁지만 빛나는 훈장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선배 선생님들이 많다. 그러한 숭고한 교사의 사회적 역할수행은 ‘담임교사’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고 지금까지 그 깊은 뿌리가 교육문화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세상이 변했고 아이들은 더 빨리 변했으며 그리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었고 심지어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 교과교실제가 확대되어가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이 담임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교사가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는 사회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3

매일매일 정글 같은 학교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늘 의무만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냐고, 우리에게 그 많은 책임을 지우면서 우리를 위한 보호막은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담임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1 2 3 13년째 고3 담임을 해온 김민경 교사와 제자들

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감히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건네본다.

‘선생님, 많이 상처받으셨군요. 그런데 교직을 정말 그만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 상처를 가장 잘 치유하는 방법은 아마도 결국 다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과목을 가르치고 38명의 학급 아이들의 학습장에 매일 멘토링 글귀를 써주며 주말에도 출근해서 자습을 지도를 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학교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신출내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그 이후 여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치고 실망하고 낙담하기를 반복했지만 한 해에 적어도 나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많았던 것 같다. 지금도 우리 반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 때문에 나를 위로하는 따뜻한 시선의 아이들과 또한 나의 도움을 더욱 절실히 바라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본다. 결국 ‘어떤 아이를 볼 것이냐’가 아니라 아이의 어떤 면을 볼 것이냐로 관점을 이동해 보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교직에 있는 한 우리는 담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제자 면면을 떠올리며 우리 내년 업무희망원에는 기꺼이 담임 희망에 체크 표시를 해보자. 선생님들~ 우리 같이 담임해볼까요? ②

‘선생님’이라는 이름, 그 무게에 대해

2

준비 없이 담임교체로 첫 제자들과 만났던 날 “나는 어떤 선생님이로 남을 것인가?”

잊히지 않는 2018년 3월 21일

2018년 3월 21일 아침,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내내 두려웠다. 갑자기 담임으로 한 학급을 맡게 되었다. 그저 담임이 되는 게 두려웠던 건 아니었다. 이틀 전, 19일 아침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날은 추운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서 출근길이 좋지 않았다. 학교 현관에 들어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조심스레 나를 불렀다. “선생님, 교장실로 잠시 같이 가시겠어요?”라는 말에 정신없이 따라갔다. 교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체육 교과전담교사였던 나는 1교시 체육 수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교장선생님은 내게 “21일자로 담임을 맡아줘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기간제 선생님 한 분이 갑작스레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 선생님께서 맡았던 학급의 담임 자리가 비게 되었다는 것이다. 순간 정신이 멎었다.

내가 들어가게 될 학급에도 담임교체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 학급 학생들은 떠나야 하는 담임에 대해 슬퍼했다. 어떤 학생

은 울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갑작스러운 담임교체에 대해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담임으로 들어가니 출근길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2018년 3월 21일 수요일은 내게서 잊히지 않는 하루다.

너무나 잔인했던 2018년 4월, 그 시간

어떤 시인이 말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 시인은 왜 4월을 잔인하다고 했을까? 시인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내게도 2018년의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담임교체 후, 학급을 재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부족한 능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신규교사인 내게는 쉽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담임으로 들어간 후 바로 다음날 학부모총회와 공개수업이 있었고, 그다음 주는 학부모 상담주간이었다. 어느 교사들에게 학부모총회, 공개수업, 상담주간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3종 세트’는 신규교사이든, 베테랑 교사이든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직 학생들에 대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상담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상담주간 내내 “선생님이 어려서 걱정이다”, “우리 애들에 대해 잘 아실까요?” 등의 말은 상처가 되었다. 그렇게 4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출근하여 교실 문을 여는 게 하루



1 2 3 올해 교직경력 2년차의 김재윤 선생님과 제자들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되었다. 선생님이 라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평생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4월 중순 어느 날 점심시간, 과학 수업 준비를 위해 화단에서 흙과 돌을 줍고 있었다. 다시 교실로 올라가려고 할 때

쫘, 갑자기 뒤에서 “김재윤 선생님!!!” 하고 누군가 큰 목소리로 불렀다. 순간 뒤를 돌아보는데 체육을 가르쳤던 6학년 학생들이었다. 아이들이 내게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나를 그리워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담임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이렇게나 힘들고 버거운 자리였다는 것을 몰랐다. 교생활습 당시에는 그저 멋지게만 보였던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의 무게를 실감했었다. 잔인했던 2018년의 4월은 그렇게 내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첫 스승의 날, 평평 울게 만들었던 감동편지

2018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선생 찾기’를 진행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몸

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학교 3층의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스승의 날은 무슨’이라며 속으로 자조했다. 1교시 수업 이후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내 책상 위에는 편지 봉투가 쌓여 있었다. 아이들은 교과전담 선생님 수업을 가서 교실에 아무도 없었다. 맨 위에 있는 봉투 하나를 열어봤다. 편지를 읽는 내내 코끝이 찡해졌다. ‘김재윤 선생님, 힘들어도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눈이 새빨개지도록 평평 울었다. 아이들도 나의 노력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3월 21일 이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없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인지,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믿지 못했다. 아이들의 편지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이 땅의 선배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왜 선생님이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된다. 그날 이후, 아이들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가 내게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그저 우리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선생님이다.

학교현장 최전선에서 따뜻한 교육 실천할 터

신규교사인 나는 퇴근길에 오를 때마다 하루를 반성한다. 오늘은 내가 아이들에게 잘 해주었는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지 못한 것이 머릿속을 맴돈다.

사실 ‘선생님’이란 세 글자는 내게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그래서인지 힘에 부칠 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란 글자를 달고 사는 만큼, 이는 필연적인 숙명이라 생각하며 산다. 더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현장 최전선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띠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교육을 실천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먼저 걸어온 선배 선생님들을 보며, 선생님으로서 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이 글을 마친다.

나의 첫 제자들과 4학년 3반 학생들 사랑합니다. ㉠

동북아역사재단 선정 2018 독도지킴이학교_경북 울릉중

“옆 마을처럼 가까운 독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진짜 교육”



“독도는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보면 적어도 3번은 다녀왔지만, 갈 때마다 몽클한 마음이 들어요.” 경북 울릉중학교(교장 배호식)의 독도 동아리 ‘독도참사랑반’ 학생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울릉도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은 옆 마을처럼 가까운 독도에 대해 친근감을 가진다.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곳’이라는 사명감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난 3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왜곡에 이어 4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 주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월을 ‘독도 교육 주간’으로 지정해왔다. 각 학교에서는 4월 한 주 동안 자율적으로 독도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펼쳐 학생들이 독도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독도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현시점,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인 울릉중학교를 방문해 이들이 펼치고 있는 독도 교육 이야기를 들어봤다.

1 김승호 교사와 ‘독도참사랑반’ 학생들
2 울릉중학교 전경
3 김승호 교사



10년째 이어진 교내 동아리 ‘독도참사랑반’

울릉도 도동에 위치한 울릉중학교는 전교생이 56명으로 도내 4개 중학교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자랑한다. 그중 21명이 동아리 ‘독도참사랑반’의 부원일 정도로 학생들의 독도 사랑이 돋보인다. 1946년 개교해 73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울릉중에서는 독도 관련 동아리 역시 10년째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전통이 있다. 교내에 총 8개의 자율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지만 ‘독도참사랑반’이 단연 가장 인기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선정한 ‘독도지킴이 학교’로 활동하면서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받고, 다른 독도지킴이학교와 함께 독도 탐방에도 나섰다.

이 학교 독도 교육의 강점으로는 무엇보다 지리적 이점을 빼놓을 수 없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학교인 만큼 학생들은 매년 적어도 한 번 독도에 방문한다. ‘독도참사랑반’을 지도하는 김승호(미술) 교사는 지난해 울릉중에 발령받아 올해로 2년째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 교사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독도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반 관람객들은 독도에 입도할 경우 접안



지에서 단 30분만 머무를 수 있지만, 울릉군청 지원 시 학생들은 3시간 동안 독도 이곳저곳을 탐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활동 역시 독도 탐방이다.

독도를 꼭 가지 않아도 학생들은 섬 곳곳에서 독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동안 독도전망대, 수토역사전시관, 안용복기념관, 독도박물관 등 울릉도 내 독도 관련 코스를 돌아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독도 탐방은 기본, 그리기 퀴즈 대회로 흥미↑

탐방 활동 이외의 다른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독도 퀴즈 대회, 울릉도 방문객 대상 독도 홍보 캠페인, 독도 사랑 그리기 대회, 독도 사랑 에코백 디자인 대회 등을 구성해 진행했다. 김 교사가 미술 교과 담당인 만큼 독도 그리기는 동아리의 중점적인 활동 중 하나다.

“포스터, 만화, 일러스트 등 형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독도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학교 곳곳은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들을 활용해 작은 전시회처럼 꾸며져 있다. 물감, 색연필, 저마다 다른 도구로 다양하게 그려낸 작품이지만 공통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그중 독도 사랑 에코백 디자인 대회 수상작은 실제 에코백으로 제작해 학생들과 울릉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4

4 '독도 사랑 그리기 대회' 작품을 들은 학생들
5 '독도 사랑 에코백 디자인 대회' 작품
6 학교는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들로 갤러리처럼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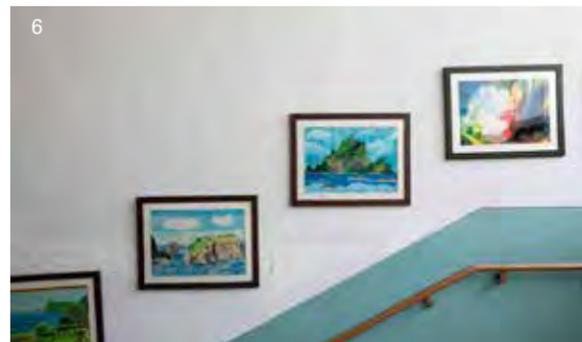


5

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생들과 시간 맞추기”였다고. 교과 시간 이후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까지 고려하다 보니 동아리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탐방 학습이나 독도 퀴즈대회 같은 경우 교과과정 내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은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계획한 독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에 만족합니다. 작년에는 독도 중턱에 있는 ‘한국령’ 표지석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올해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까지 오르는 것이 목표예요.”

공교롭게도 울릉중에서 운영하는 ‘독도참사랑반’은 올해로 마무리된다. 2020년도 1학기부터 울릉도 내 4개 중학교가 ‘울릉중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폐합되기 때문. 현재 울릉도 사동 부지에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학교 위치와 시설부터



6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여객선터미널에서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독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 멀리 외딴섬’, ‘독도는 우리 땅’, ‘독도야 간밤에 잘 잤니?’ 등 학생들은 저마다 문구를 만들어 독도 홍보는 물론, 울릉도의 일일 관광 안내 역할까지 톡톡히 했다.

독도 그리기와 독도 홍보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을 키웠다면, 독도 퀴즈 대회는 독도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으로써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먼저 예상 문제를 받아 공부한 후, 상품권을 건 치열한 골든벨 대회가 펼쳐진다. 질문들을 살펴보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 “독도의 우편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나라가 독도를 통치해온 문헌 기록 증거 등 역사적 사실을 묻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니 학생들은 쉽고 재미있게 독도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접하게 된다.

김승호 교사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국제 사회에 독도의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역사 왜곡 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체계적인 독도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일본 대항하려면 체계적인 독도 역사교육 필요”

독도 관련 활동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는 학생들 덕분에 동아리 운영에 힘든 점이 없었다는 김 교사

학생, 교사 등 구성원들도 전부 바뀌게 된다. 독도 동아리 역시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겠지만, ‘독도참사랑반’으로서의 활동은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김 교사는 “개인적으로 울릉중에 오게 되면서 독도 땅

을 처음 밟게 됐기 때문에 지도 교사로서도 의미가 남다르다.”며 “학생들에게도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독도 수호 의식을 키우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한다. ㉠

INTERVIEW

**‘독도참사랑반’ 임준우·정유경·김수휘 학생
“우리가 독도 전문가”**

울릉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준우·정유경·김수휘 학생은 1학년 때부터 ‘독도참사랑반’의 부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모두 울릉도에서 나고 자란 울릉도 토박이로, 고향과 가까운 독도에 대해서도 저마다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독도참사랑반’ 부원으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남다른 독도 사랑이 느껴진다. 이제껏 독도에 4번 방문했다는 정유경 양은 “독도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동아리에 지원했다.”라고 말한다. ‘독도참사랑반’ 부원으로서 정 양은 특히 “퀴즈대회를 공부하면서 독도 관련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정 양은 올해 이제껏 독도에 대해 배운 내용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독도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물론 그 학교에도 독도 동아리가 있겠지만, 저희가 훨씬 잘 알 걸요?”
3학년 정유경

“독도에 직접 가면 정말 좋아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올해도 꼭 가고 싶어요.”
3학년 임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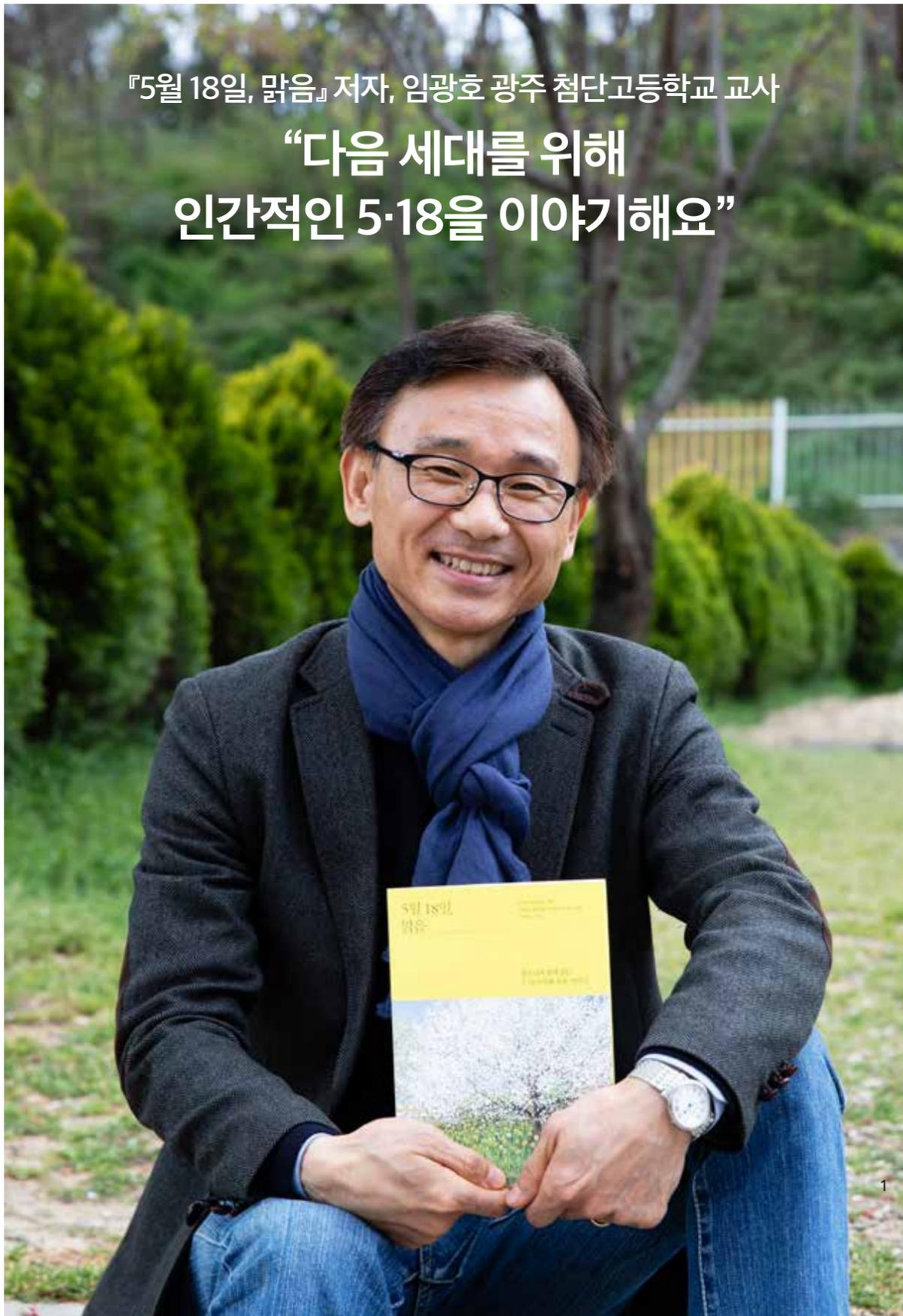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간식을 전해줬을 때 제일 뿌듯했어요. 올해도 독도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3학년 김수휘

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 땅을 밟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독도의 역사를 알고 싶어 ‘독도참사랑반’에 지원하게 됐다는 임준우 학생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독도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게 됐다.”라고 말한다. 임 군에게 특히 기억에 남



는 동아리 활동은 바로 독도 그리기 대회에서 2등을 기록한 것. “포스터 형식으로 그린 작품인데, 독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그렸다.”라고 말을 전한 임 군에게서 뿌듯함이 느껴진다.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 교육을 받아왔다는 정유경 학생에게는

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김 양은 독도 사랑 에코백 디자인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갖고 있다. 가장 자신 있는 그림을 통해 독도 사랑을 표현해내고 수상까지 한 것은 김 양에게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다.



『5월 18일, 맑음』 저자, 임광호 광주 첨단고등학교 교사
**“다음 세대를 위해
 인간적인 5·18을 이야기해요”**

“5·18 민주화 운동은 잔인했지만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현직 교사가 청소년을 위한 5·18 민주화 운동을 책으로 펴냈다. 『5월 18일, 맑음』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진 항쟁, 그리고 그날의 죽음을 기억하며 더 맑은 세상을 위해 애써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4명의 교사가 공동 집필하며 어려운 한자말이나 개념들을 입말체로 쉽게 풀어 쓴 점이 돋보인다. 책임저자인 임광호 광주 첨단고 역사 교사는 “역사 왜곡, 폄훼, 비방 등에 휘둘리지 않고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말한다.

“수업에서 만난 아이들은 5·18을 폭력적인 장면으로만 기억하더군요.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바로 그 모습이지요.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는지, 어떤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5·18의 아름답고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라지요.”
 유난히도 맑았던 5월 18일의 아침. 그날의 항쟁이 긴 역사 속에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책 제목도 ‘5월 18일, 맑음’으로 정했다고 했다.

청소년을 위한 5·18 이야기

목숨을 걸고 반독재 투쟁을 벌인 이들은 역사 속 위인들이 아니었다. 주먹밥을 빚어 시민군을 도운 동네 주민들, 다친 이들을 위해 헌혈을 하다 총에 맞은 여고생, 차량 행렬로 시민을 보호한 택시·버스 기사 등등.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했는지를 저자는 하나하나 사료를 찾아가며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기획안 구성부터 탈고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사람의 위인전이 아니라 광주 시민 모두의 이야기를 담으려 하니 사료가 방대했지요. 수백 권에 이르는 참고문헌과 자료를 살살이 뒤지고, 고증하는 과정에서 원고



1 임광호 교사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청소년 도서를 출간했다.
 2 임 교사와 첨단고 사회참여 동아리 아이들이 학교 앞 교통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수정만 13번을 거쳤어요.”
 특히, 이야기 사이사이에 민주주의, 언론, 국가폭력 등 우리가 살펴봐야 할 민주적 가치와 개념들을 두루 살피고 있다. 파리 코뮌, 피카소의 「게르니카」같은 세계사 속 사건을 통해 5·18의 보편적인 의미도 되짚어본다.
 “5·18 각종 수사·재판 기록, 사진과 필름 등의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걸 아시나요? 이미 39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를 비롯해 명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암매장 등 당시 행방불명 된 많은 이들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망언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18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지요. 그동안 5·18을 기록한 책과 영화 등도 다양했지만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5·18이 왜 일어났고, 우리나라 민주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지요.”

공교육으로 들어 온 오월의 정신

총 4,634명이 피해를 보고 155명이 사망한 그해의 5월 18일. 임 교사는 광주 시내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총알을 막아준다는 숨이불 속에 숨어 두려움에 떨었던

열흘의 기억은 그에게도 여전히 선명하다. 구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지나며 분 불에 탄 흔적들, 매캐한 최루탄 냄새, 총을 든 군인들. 임 교사는 “친구의 친구가 금남로에서 목숨을 잃었다. 상무관 바닥에 관들이 쭉 놓여 있었는데, 예민했던 청소년기의 5·18은 그렇게 기억에 새겨져 있다.”라고 했다.

전남대 사학과로 진학한 그는 교사가 되어 5·18기념재단과 다시 인연을 맺었다. 그동안 5·18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일에 청소년 교육위원으로 참여한 것. 그는 2000년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다양한 교육교재를 연구 개발·보급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자문하는 한편,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도 저변을 넓혀갔다.

“공교육 안에서 5·18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용 리플릿 ‘5·18 민주항쟁’을 제작한 첫해에는 전국 300개 이상 희망 학교에 5만부가 배포되며 큰 호응을 얻었지요. 이듬해에는 수업용 CD ‘5·18 민주항쟁’을 개발해 보급하고, 오월 이야기를 담은 역사교과 수업안, 교육용 동영상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 이야기’ 등을 제작·보급하면서 5·18에 대한 전국 교사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청소년이 기획·참여하는 ‘5·18 레드페스타’는 청소년 평화축제로 시작해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지요”



3

2008년에는 5·18 공교육화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고등 학생용 인정교과서 『5·18 민주화 운동』을 집필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5·18 장학자료와 지침을 현장에 전달하는 등 5·18 공교육화 기반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5·18을 넘어 민주시민교육으로

5·18은 교실 문턱을 넘으면서 시민교육과정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할 보편적 가치와 사회상,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역할과 시민성을 5·18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는 그는 2001년엔 ‘사회참여형 봉사활동’ 모델을 개발, 8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협력교’ 체제를 만들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네트워크를 맺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주제에 따른 교육을 받고, 연간 다양한 사회참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어른들은 우선 걱정부터 합니다. 그러나 사회참여는 아이들의 사회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지요. 주변의 문제들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공감하고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며 한 사람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지식을 넘어 아이들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해요.”

2002년부터는 18년째 재미환경운동가 ‘대니 서’의 이름을 붙인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청소년의 사회적 성찰과 소통을 위한 대니 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단에서 실천해 오고 있다. 유해 환경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은 물론, 청소년 인권보호 활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아이들이 우리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활동이 중심이다.

2007년 자연과학고 학생들과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 찾아주기 활동을 전개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 법무부와 통계청,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한 아이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도 벌였다. 학생들은 활동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이듬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개최한 ‘2008 인권 영상제’에 출품해서 청소년부 장려상을 받았고, 이에 화답하듯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지역 다문화 가정 인권 상황과 자녀들의 교육권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임 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노동자가 될 자신의 아픔과 사회적 시선에 당당해졌다.”라고 말한다.

- 3 동료 교사 4명이 함께 집필한 도서 『5월 18일 맑음』
- 4 학생 참여로 조성한 교내 공간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임 교사와 첨단고 사회참여 동아리 학생들
- 5 교문 앞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임 교사와 첨단고 아이들
- 6 청소년 사회참여를 주제로 임 교사가 집필한 저서 『아름다운 참여』

사회참여 활동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올해는 첨단고 사회참여 동아리 아이들과 학교 앞 교통문제 해결에 나섰다. 내달 초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이 마무리 되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시민단체 활동 못지않게 그 과정이 길고 험하지만 아이들의 관심과 열정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지요(웃음). 그 과정은 힘들지라도 아이들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교사도 NGO 활동에 참여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는 2004년부터 (사)동북아평화연대와 함께 재중동포 민족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사들과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민족역사를 답사해오고 있으며, 조선족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와 민족 문화교실을 지원했다. 연해주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관’ 건립 성금을 냈고, 중앙아

시아에서 역 이주한 고려인 후손들을 위해 긴급 거주 지원 사업으로는 집 한 채(한화 300만 원)를 기증했다. 베트남(베트남 현지 발음) 민간인학살도 그의 큰 관심사다. “5·18이 자국민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면 베트남전은 외국인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는 그는 불편한 진실도 바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광주의 역사 교사로서 베트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을 모색 중에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과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란다.

그의 삶 속에서 1980년 오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김해 관동초 '우리 마을 수비대' 프로젝트

디지털교과서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역화 수업 적용,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해 지역화 수업을 하고 있는 구은복 교사와 4학년 8반 친구들

김해 관동초등학교(교장 윤상현)는 56학급의 1,5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규모 학교이다. 올해 디지털교과서 정책 연구학교 2년 차인 학교는 모든 교실에 무선 AP기기 68대를 설치하여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였으며, 606대의 태블릿 PC를 구비, 3~6학년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 제작팀을 구성하여 지역화 수업을 위한 360도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사회과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는 관동초를 소개한다.

VR로 체험하는 우리 마을 수비대!

우리 마을 수비대 프로젝트가 한창인 관동초 4학년 8반 교실. 우리 마을 수비대 프로젝트는 초등 4학년의 국어과, 사회과, 미술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아이들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긴 여정이다.

구은복 교사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 프로젝트 내내 인물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4월 19일, 우리 마을 수비대 프로젝트의 첫 시간. 아이들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누가 문제를 겪고 있는지(Who), 왜 문제가 되었는지(Why),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How), 무엇을 배웠는지(What)에 대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키워나간다.

관동초가 위치한 장유동에는 어떤 시설이 있을까? 장유동에는 관동공원, 김해서부문화센터, 김해울하유적전시관, 반룡산, 용지봉, 울하유적공원, 대청천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아이들은 모둠별로 관찰할 시설을 정하고 VR(가상현실) 감상용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VR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머리에 착용한 후 마을 탐색에 나선다.

반룡산 정상까지 둘러본 방보윤 학생은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려면 힘든데, VR로 빠르게 정상을 둘러볼 수 있었고, 생생한 느낌이 좋았다.”라고 기록한다. 장유사를 둘러본 양지호 학생은 “나무가 많아 공기도 맑고 눈의 피로도 풀릴 것 같다.”라며 “하지만 길이 너무 가파르고 꼬물꼬물해서 걸어가기도 힘들고 차를 타고 가기도 힘든 곳 같다.”라고 한다.

선생님들이 어렵게 발품을 팔아 직접 마을을 돌며 촬영·제작한 3분짜리 지역화 자료는 360도 영상으로 제작되어 간접 체험만으로도 마을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이들은 우리 마을에 있는 시설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고민을 이어나간다. 서준석



VR을 통해 마을을 탐색 중인 아이들



교사들이 360도 영상으로 제작한 관동초 VR 화면

학생은 “카페거리로 유명한 울하천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애완동물의 배변으로 지저분해졌다.”라며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더러워지고 있는 울하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위두랑(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학습 커뮤니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이들은 구은복 교사와 학급 친구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마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아는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

실감형 콘텐츠 수업 모델 연구 중

관동초는 올해 디지털교과서 정책연구학교 2년 차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일반화 모델을 연구 중이다<그림 참조>. 역량기반 회복적 4W 생각수업이 그것이다. 현재 전 교원이 콘텐츠 교수·학습 모델 개발연구팀이 되어 디지털 교과서와 실감형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각 학년마다 운영하여 실제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구은복 교사가 책 속의 인물이 처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변화와 특징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360도 영상이 접목된 실감형 콘텐츠가 탑재되었다는 점이다. 관동초는 디지털교과서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 외에도 실감형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지역화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덕분에 교실에서는 더욱더 생생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경진(연구부장) 교사는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가 사회과인데, 현재 3·4학년 디지털교과서에 개발된 콘텐츠는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한 편이다. 수업에 대한 흥미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팀을 꾸려 지역화 자료를 개발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미 지난해 3~4학년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사회 지역화 수업을 위한 영상 목록 60여 개를 선정하였으며, 10여 명의 교사가 뜻을 모아 김해지역을 돌며 영상 자료를 촬영하는 등 콘텐츠를 완성하였다. 올해에는 범위를 김해에서 경남지역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역화 자료 개발 중에 있다.

VR 영상 촬영이 처음이었던 탓에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60여 개의 영상 목록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촬영 협조를 구했다. 주의를 기울여 촬영했음에도 일반인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가 촬영되어 재촬영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 구은복 교사는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앞

과 삶이 연계되어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배움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해결력이 키워졌다.”며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는 올라가고 더불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경진 교사는 “직접 가지 않아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3~4학년 사회과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과목,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한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환경 구축

관동초는 56학급 1,570여 명이 재학하는 학교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한다. 김경진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정책연구학교 전부터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왔다.”라고 설명한다. 학교는 현재 전 교실 및 특별실에 무선 AP 68대를 설치하여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606대의 태블릿PC를 구비하여 3~6학년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해오고 있다. 여기에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로 VR 카메라 3대와 카메라용 짐벌 2대도 구비하고 있다.

특히, 360도 영상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자이로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필수지만 디지털교과서 정책연구학교에 지원받은 예산으로 디지털 환경을 갖추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교사와 학생의 스마트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스마트폰을 기증받아 40대를 확보했다. 또한 비싼 가격의 HMD는 아니지만 190대의 HMD를 구입하여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였다.

추완식(정보)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장애물로 많은 분들이 무선망 구축과 태블릿PC 확보를 꼽는데, 예산만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태블릿PC 활용법이나 디지털교과서 및 위두랑 조작 방법 등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수업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조언한다.



유은혜 부총리가 5월 2일 관동초를 방문,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추완식 교사는 “학교단위에서 개발한 실감형 콘텐츠를 모아두는 공간과 유용한 앱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다면 선생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유은혜 부총리, 디지털교과서 활용 현장 챙겨

한편 지난 5월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동초를 방문, 실감형 콘텐츠를 더한 이 학교만의 특색 있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참관하였다.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인 실감형 콘텐츠를 접목한 4학년 사회과 수업에 학생들과 함께 모듬을 구성, 직접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미

래교육을 체험한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라고 수업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날 유 부총리는 관동초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하여 경남도교육청 송기민 부교육감,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변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나눴다.

윤상현 교장은 “지난해에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냈다면 올해에는 콘텐츠를 만들어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며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모델을 일반화하여 보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조금씩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상황에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 유은혜 부총리는 “앞으로 증강·가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접목시킨 질 높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이를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또 학생들이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㉔

<그림>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

역량기반 회복적 4W : 생각수업		→ 프로젝트 학습 기반 교수·학습 모델		
단계	1T Who	2T Why	3T How	4T What
회복적 질문	누가 문제를 겪고 있는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배웠는가?
배움활동	공감을 통해 문제발견	“왜?” 질문으로 문제 구체적 정의	해결방법 수집 및 구체화, 보완	해결책 적용 및 배움 성찰
평가(기록)	어울림 평가(자기)	어울림 평가(자기)	어울림 평가(상호)	어울림 평가(교사)

공감을 토대로 사람에게 불편한 점,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 수집능력을 통해(1T Who) 문제상황에 대한 재조명 및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2T Why), 친구들과 협업적 대화를 통해(3T How), 문제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하고자(4T What)하는 역량기반 수업적용을 말한다.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자생력을 키운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 문화적 지체, 경제적 빈곤, 공공서비스 질의 낙후성 등 교육환경으로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 우수학생의 도시 이동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우수교 지원 사업’(04~09년, 1,619억 원),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09~11년, 806억 원),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09~13년, 2,229억 원), ‘ICT 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13~18년, 360억 원) 등의 국가정책사업을 수립하여 농어촌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학교는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도모에 취약하고, 다양한 교과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교사 의존성이 과다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가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 대비되는 특색 있는 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긴밀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개별화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상호 협동적 학습 기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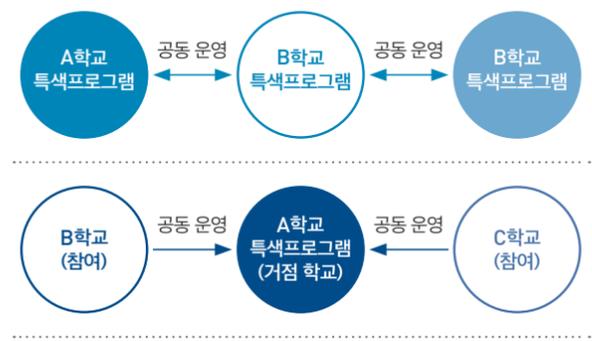
교육부는 2018년도부터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단위학교의 다양한 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간 협력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의 ‘두레학교 사업’, 전라북도교육청의 ‘어울림학교 사업’, 전라남도교육

청의 ‘1학교 1브랜드 사업’ 등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등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본 사업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자생력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의 개발과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1. 작은 학교, 농어촌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부는 농어촌에 소재한 단위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과 2019년에 20억(학교별 500만 원)을 지원 중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학교가 소재한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농어촌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특색프로그램 운영(유형1), 동급 학교 간 시설·프로그램 공동 활용 및 인근 학교와의 학교군을 구성한 특색 프로그램 공동 운영(유형2), 농어촌 지역 주체들이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교육활동 운영(유형3) 등의 세부사업을 운영한다.

〈표1〉 농어촌 작은 학교의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



2.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

2018년 단위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학교별로 성과의 격차가 존재하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성과의 확산이 제한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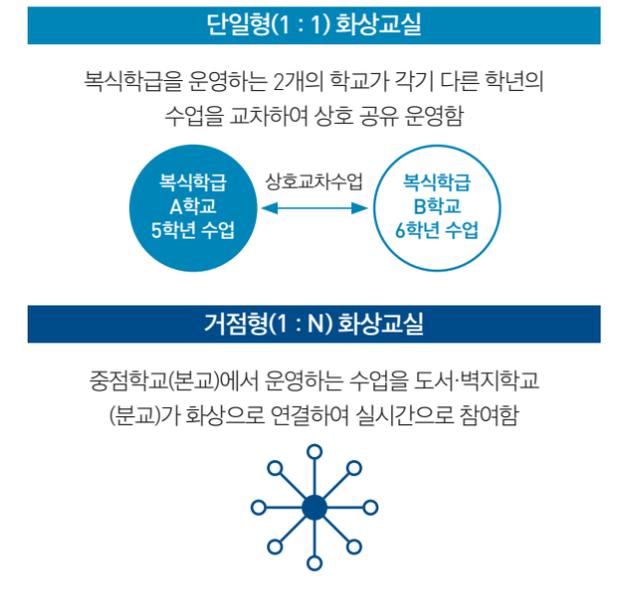
교육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에는 ‘교육지원청 중심형’ 사업(30억, 10개 교육지원청)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다양한 수업모델 개발 및 특색프로그램 우수사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 결과 11개 교육지원청(인천 강화, 경기 연천, 충북 단양, 충남 예산, 전북 김제·순창, 전남 해남, 경북 문경, 경남 의령, 제주도·서귀포시)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 도서·벽지에 미래형 화상교실 구축

도서·벽지에 소재한 학교는 영세한 학교 규모로 인하여 초등학교에는 2개 이상의 학년이 함께 수업하는 복식학급의 운영과 비전공 교사가 선택과목을 수업하는 상치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권 제한 및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극소 규모 농어촌 학교일수록 복식학급 운영과 상치교사 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극소규모 도서·벽지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미래형 화상교실 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도서·벽지학교에 쌍방향 수업공유 화상교실을 구축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복식학급과 상치교사 운영이 불가피한 도서·벽지지역 학교 여건에 적합한 대안적 교육모델의 시범 운영이 주 내용이다. 본 사업을 위하여 인천·전남·경북교육청에 총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15개의 화상교실을 구축 중에 있으며, 2학기부터 사업 대상 학교 간 정규교과 및 선택교과 수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표2〉 화상교실 운영 유형 및 활용 예시



농어촌 학교, 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8년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을 지원한 결과 농어촌 학교의 사업만족도는 4.38점(5점 만점)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담당 교원 등 학교관계자로부터 학생들의 친사회적 가치 함양과 공동체의식 함양 등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인지적 학습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다양한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역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학교 간 연계교육활동 등을 정책수단으로 농어촌 학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의 특색화가 최종 목적이다.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의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특색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농어촌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 개발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②

교사로부터 시작하는 교육혁신, 학교 혁신을 주도하는 ‘교원양성연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학령인구 감소, 다양한 가치의 등장과 이에 따른 갈등 조정의 필요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과거 지식전달,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문제 해결력 중심의 교육과 같은 폭넓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학교교육 혁신은 학생 참여 수업·과정 중심 평가 등 수업혁신, 자유학년제 등 진로 탐색 기회 확대, 고교 학점제 등 학생 선택권 확대, 그리고 학교 자치 등 학교 문화의 민주적 변화 등으로 대표된다. 학교 현장의 새로운 변화는 미래 교원에게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 기획, 진로 탐색, 교육과정의 융·복합적 재구성, 지능정보기술 활용 교육, 갈등 조정·문제 해결 등 미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OECD 2030; 김찬중 외, 2018).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학교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



과는 교사교육 개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학교교육 혁신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교원을 양성·선발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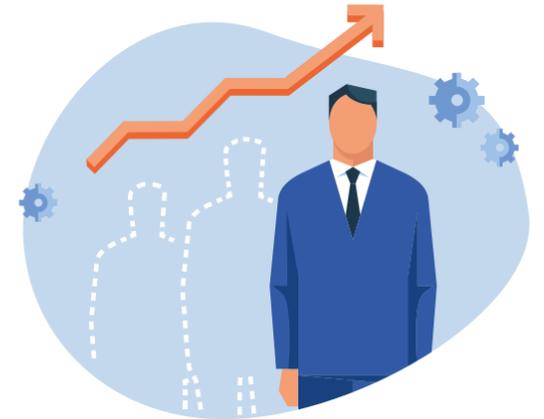
초·중등 교원의 역량 개발 전반의 업무 담당

교원양성연수과는 교원 양성 및 자격검정, 교원임용시험, 교원 연수 등 초·중등 교원의 역량 개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며,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현직 교원이 정

책 고객이다. 전국의 교원양성기관이 훌륭한 교사를 키워내도록 돕고, 높은 수준의 자격·역량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며,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 교원 양성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초·중등 교원 양성은 초등은 교육대학 등, 중등은 사범대학·교직과정·교육대학원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원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교사교육 개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학교교육 혁신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교원을 양성·선발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격검정기준을 수립·시행하고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질 높은 교원의 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교원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의 설치·폐지 및 교원양성 정원 조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교원양성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도 교육혁신을 선도할 미래 교원을 양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둘째, 공·사립 교원 임용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교원으로 선발하도록 지원한다.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임용시험이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사립 초·중등 교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올 3월에는 시·도 교육청,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함께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공동 제작·발표하였다. 향후에도 공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교원 연수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매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을 수립·안내하여 교원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연수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기관’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인다. 또한 교육 현장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원격연수 콘텐츠를 제작·지원하여 교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연수지명장부제도 폐지와 함께 원격연수 신청승인 시 지명간주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연수 담당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직무연수 참여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교원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원연수 기획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과 향후 과제

1.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예비교원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편의 큰 방향은 미래 창의·융합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양성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 현장과 학생을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선발하고자 한다.

으로, 개편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원들은 수업지도 역량, 미래대응역량, 학교현장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예비·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원양성기관, 대학 교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2.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제도 개선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 현장과 학생을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선발하고자 한다. 임용시험 개선 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과·교육학 관련 이론 전문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교육과정 재구성 등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육청의 교육비전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수행할 신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원임용시험에서 시·도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연수 활성화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연수 운영 및 연수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교원의 성장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생애주기별 요구 역량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연수과정을 차별화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및 교원 등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교원의 자발적 연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연수', '학교 요청 연수' 운영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연수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참여형 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수의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인구절벽에 대비한 교원양성방식 / 자격체계 / 수급 규모 등에 대한 고민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이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교원 양성 및 자격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연동되는 교원 수급 계획을 고려한 교원 양성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과 간 융합 교육,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맞추어 초등과 중등 자격으로 나뉜 현행 교원 자격 양성 체제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교원 양성·자격 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으로 인구 구조 변화, 학생 개개인이 더욱 소중해지는 미래교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원 교육의 중요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에 대한 적응을 넘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도움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혁신에 있어 미래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선발하며, 교직 입직 이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앞으로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예비교원에서부터 현장 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교사용)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이제 몇 번째야 - 선생님! (Teacher's perspective)

방문교사가 - 수업시간인데... (Teacher's perspective)

드르릉! 아! #자%###후@ 우리 아이가 생활하기 힘들어! 바깥 추세요! (Teacher's perspective)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모두 교원침해행위입니다. (Teacher's perspective)

온라인 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와 구분되는 사안의 대응

어쩔 (Teacher's perspective)

폭행, 육체적 상해 등 정신적인 상해 등을 입었을 때

부당해... (Teacher's perspective)

장계

위원회

학교 내 갈등이나 징계 및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학교 내 갈등은 고충심사를, 징계 및 부당한 대우는 소청심사를 청구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사의 대응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 학교에 업무 및 수업 조정, 조치 및 병가조치 요청 및 사안에 따른 병원 진료 →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선도위원회 개최(필요시) → 법적 조치 및 사후처리

학생 조치

잘못했습니다. (Teacher's perspective)

공개 사과

학생 공개사과, 반성문

심리상담(심리치료) 지원

힘드셨어요 (Teacher's perspective)

교원 힐링 연수 지원

피해교원 지원(교원치유지원센터)

법원

법률 관련 상담 및 소송 지원



스승의 날, 교권을 이야기하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 보호가 핵심 “교권 회복이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길”



패널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경민 서울 상계초등학교 교사
이안정 인천 진산중학교 교사
조선영 학부모 사회: 이순이 편집장

일시 2019년 4월 29일(월) 오후 4시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
정리 양지선 기자

지난 3월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권보호와 스승 존경 풍토에 대한 교원,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사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교권보호 및 스승 존경 풍토에 대해 현장 교원과 학부모, 정책 담당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권을 침해한다’, ‘교권을 보호한다’라는 말조차 없는 세상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 자리를 통해서 침해받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스승 존경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교권과 교권침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주시죠.



김혜진 교권은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아주 넓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권이라는 용어는 ‘교원이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권리·권한’을 의미합니다.

법령에서는 교권이라는 단어 대신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권침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그리고 교권보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말합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성폭력 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며,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에서는 추가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공무 및 업무방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현장 교원이 보는 교권침해 실태



사회 오늘 이 자리에 초·중학교 선생님께서 각각 참석하셨습니다. 교권침해 사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접하고 계실 두 분께서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경민 실제로 각 교육청에서 교권침해 상황 접수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건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처리된 상담 건수를 보면 학부모로부터 침해받은 건은 267건, 학생으로부터 60건, 교직원 15건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해결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기보다는, 담임을 교체하거나 병가를 통한 학생과의 일시적 격리 조치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고 속앓이만 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동료 교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안정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언어적·물리적·정신적 폭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근방 학교에서는 여교사를 몰래카메라로 찍기 위해 교사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별다른 법적 조치나 전학 처리 없이 그대로 학교생활을 이어가서 선생님의 후유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도 많은데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교사로서는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친구와 몸싸움을 하는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수업 태도를 지적하자 책을 집어던지며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외모나 연령대를 가지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퇴근 후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 학부모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입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니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학부모

가 학생을 시켜 수업을 몰래 촬영하도록 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사회 학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교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영 저는 중학교 2학년생과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큰 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께서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같은 반 친구를 지도하다가 수업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한 명의 학생을 지도하느라 다른 학생들이 전부 피해를 본 것이니 학부모 입장에서 속이 상했습니다.

또, 선생님마다 훈육의 기준이 달라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따라 수업·생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스스로도 학생들이 학부모로 대할 수 없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확실히 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권보호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이유



사회 앞서 교권침해 사례들을 들어보니 그동안 중대한 교권침해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인 교원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보통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김경민 막상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면 당황하여 알맞은 대처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고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학교 차원의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직 경력이 짧거나 관련 경험이 없으면 그 대처가 미흡해 책임 과실은 교사에게 온전히 돌아오기도 합니다. 교사가 겪은 일을 개인의 과실로 간주하면 그 심리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 교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교실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리자도 있습니다.

이에 교사도 교직 과목을 이수할 때 관련 법이나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받고, 발령 후에는 경험이 많은 선배 교사들의 체험이나 멘토 교사로부터의 지속적인 안내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인지하여 자녀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의 관련 안내와 연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혜진 해마다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단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선생님들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처,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교원지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건의 조정과 대책 수립, 피해 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치료, 심리 상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과 직무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교원들을 위한 힐링연수 등을 운영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에 대한 대처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사항



사회 교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혜진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이들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언, 치료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했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서 비용을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급교체,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침해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료에 참여토록 하여 적정 수준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의 교육활동 침해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의 교직원, 학생,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치유 등의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이 지원을 받기에 한계가 있었고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나 단위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에 대한 기대



사회 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직접 마주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경민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크게 사고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게 되면 교실에서 혹은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상황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극복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렵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이나 폭력을 당할 때는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교원지위법을 통하여 앞으로 교사가 정당하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도 언젠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안정 미국 뉴욕주 공립학교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1. 생활지도교사가 관찰하는 정학교실에 머물게 한다.
2. 유기정학처리를 하고 학생은 정학교실로 등교시켜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3. 수업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재배치한다.
4.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기간 고쳐지지 않으면 낙제 처리한다.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5.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교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한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교원이 많았습니다. 외국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만들고, 교원이 그 기준을 넘지 않는 한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권의 추락은 공교육 전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교원지위법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정당한 교권 행사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교권 회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



사회 지금까지 교권침해, 교권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

면, 교사들 스스로도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스승 존경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영 자녀가 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부모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내 아이가 잘 되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지닌 학부모가 바른 아이를 길러냅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부모가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아이 앞에서 표현하는 거죠. 엄마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선생님께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 스승 존경 풍토를 위해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최우선인 나머지 선생님께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데, 학부모 연수를 통해 교원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배려와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경민 학생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침해나 보호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또래와 원활한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학업을 잘 마치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교

사와 학생이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 되도록 맡은 자리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운데 둔 2인3각 경기를 하듯이 서로를 보조해주고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안정 교원지위법은 우리 사회에서 교권과 교육 활동이 자연스럽게 보장되기보다 법으로 규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OECD 교수·학습 국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교사 위상지수'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교직을 희망한다'는 학생의 응답률도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현직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의 응답률은 1위를 차지했으며, 교사를 존경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역시 11%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은 교직에 대한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시각,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 증가, 사교육 확대에 따른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존의 상대적 약화, 교수·학습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학교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간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권·학습권·인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교사를 비롯해 국가와 지역교육청의 모든 교

육공동체가 타인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합니다.

또,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교원 정책을 세워야 하며 교원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언론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극소수의 사례를 확대하여 전체가 그런 것처럼 부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기적 전환기에서 미래의 주역 을 길러내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중심에서 서 있는 스승들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직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진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동료 학생과 교원 등 타인을 배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며,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학생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존중은 학생에 대한 존중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 존중은 타인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교원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고 이를 교수·학습 활동에 녹여내어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상호 존중의 문화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성 계발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교직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㉞



- ‘고교학점제, 미래를 열다’ 주제로 소통 시간 마련
- 관계자 400여 명 참석, 높은 관심 보여
- 유 부총리 “2025년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

1 '2019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현장
 2 고색고 정보과학 수업을 참관하는 유 부총리



2019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학점제로 꿈에 한 발 다가간다”

“고교학점제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이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경기 고색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윤백 학생이 지난 1년간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후 전한 소감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2019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가 지난 4월 12일 고색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원·학부모·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2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린 고색고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돼 올해로 2년째 운영 중이다.

이윤백 학생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 과목의 자율화”라면서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했다. 스포츠 캐스터를 꿈꾸는 이 군은 지난해 정치와 법·윤리와 사상·실용 경제 등 6과목을 선택했고, 올해는 전문교과인 ‘세계문명과 미래사회’를

주문형 강좌로 수강 중이다. 이어 “대학 입시를 위해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돼 활기찬 학교생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교육감, 정종욱 고색고 교장, 한선에 갈매고 교사, 이윤백 학생, 학부모 대표 김은지 씨가 패널로 참석해 ‘고교학점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시 위주 과목 선택·교원 부족 등 문제점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필요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래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성, 창의성, 협업능력 등이 필요한데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까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대학 입시가 아닌 100년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정종욱 교장과 한선에 교사는 공통으로 “교원 부족” 문제를 꼽았다.

한선에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텃밭 가꾸기, 패션 마케팅, 연극 등 여러 과목을 개설하다 보니 교사들이 수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강사 풀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교과 신설 시 유연한 교원 배치 등 교사 공급 문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지 씨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자율을 주지만, 자신의 관심 분야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부담될 수도 있다.”라며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 개개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는 철저히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농 간, 학교 규모별 과목 개설 격차에 대한 우려의 말들에 유은혜 부총리는 “농어촌 지역 강사 파견과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고,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예산·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정종욱 교장은 “고교학점제란 가야 할 곳이 정해진 패키지여행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배낭여행”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

공간주권을 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 학교 공간혁신 민주시민교육과 만나다



교육부는 4월 26일(금)~27일(토) 이틀간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적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수업을 통한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이틀간 이어진 워크숍에는 전국 민주시민교육, 공간혁신 담당 교사 약 200명이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수업을 통한 공간혁신 추진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간워크숍’은 민주학교 연계 공간수업 프로젝트 참여 담당자(교사)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프로젝트 운영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주권**의 관점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이해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학교 적용 방안 모듬 토의 및 모듬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간혁신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간수업 프로젝트’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공간에서 교육과정과 연

공간주권은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공간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가 처음으로 제기한 개념으로, 학생들이 학교 공간 안에서 자신들의 공간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며, 공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학교 공간혁신지원단 구성, 현장 밀착 지원
- “학교 공간혁신의 핵심은 사용자 참여설계”
- 광주, 5년째 학생이 만들어가는 공간 재구성 추진

1 2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간혁신 프로젝트 ‘아지트’ 사업 발표회에 참석한 유부총리



계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아울러 학생, 교사, 전문가 등이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 학교 공간을 혁신시키는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건축,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시·도교육청별 ‘학교 공간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전라남도 신안 암태중 임지에 교사의 공간혁신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목소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현장 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로 작은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공간혁신의 바람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 공간혁신의 핵심은 사용자 참여설계”라며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활동을 통해 공간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크숍을 통해 철학·방법 등 다양한 실천 사례를 나눔으로써 학교 공간혁신이 확산하고,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광주 학교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 ‘아·쥬·트’

같은 날 광주 청소년삶 디자인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아지트(아·쥬·트)’ 사업 실천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하여 장휘국 교육감, 학생 및 교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지트는 ‘아이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시도(Try)를 해 보

자’는 의미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학교가 민주주의의 배움터이자 학생들의 삶의 공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간 재구성 사업이다.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인 ‘아지트’가 전국적인 각광을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공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별히 광주시교육청은 5년 전부터 공간혁신 사업을 시작하여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을 함께 혁신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사례 발표회에는 마지초의 ‘학교를 광주교육관광 명소로’(김윤민 학생 등 4명)라는 주제로 빈 교실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 수업·캠프 등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 말미에 학생들은 중학교에 가도 공간혁신을 통한 수업을 하고 싶다고 작은 바람을 전했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의 ‘GATTEN 아지트와 삶’(김도아 등 8명), 첨단고의 ‘학교 공간에서 뒤집기 한 것-Z가 X에게’(김채연 등 3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한 유은혜 부총리는 “2017년 광주에 와서 엉뚱 교실을 보고 처음으로 공간혁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며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한 실천 사례를 통해 공간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격려했다. 교육부는 공간수업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공간구조 변화와 학교 바꾸기를 통해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삶의 혁신으로 발전하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희망하며

교육 분야만큼이나 뜨거운 정치적 아젠다는 많지 않다. 민생에 직결되기에 정치인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기반에 비추어볼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미지근한 국회와 여론의 반응은 의아하다. 국회의원들이야 당파싸움에 함몰되어 있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계에 미치는 그 파급력과 중요성을 생각해보자. ‘설치법’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직무유기 중인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서둘러야

왜일까? 내 생각에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이미 우리 안에 팽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18번의 대통령과 20번의 국회위원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수없이 교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약속들을 들어왔다. 그러나 장밋빛 환상은 잠깐일 뿐,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항상 실패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래서일까.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2년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뽑아도, 어떤 교육부 장관을 뽑아도 항상 실패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번에도 비슷한 실패가 반복될 것 같아 시작부터 관심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서둘러야 한다. 일년지계로 끝나곤 하는 교육정책이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될 수 있으려면, 고작 임기가 6년 이하인 대통령과 국회,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정권과 무관하게 초정파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중·고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에 과감히 이관하고, 학교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교육위,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의 발의안(약칭 국교위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 차관과 대통령 지명 5명 외에 국회 지명 8명,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1명 및 교육계(교원단체)추천 4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중립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개헌과 연계하여 이 신설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헌법상 합의체 독립 기구로 만드는 것도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상위에서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고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자치분권과 함께 이루어지는 합의제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과정이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정권과 무관하게 초정파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가 필요하다. ②



진로 맞춤형 수업 골라 듣는 강원도 '행복고등학교'

매주 금요일 강원 원주고등학교(교장 김병철)의 공동교육과정 수업시간에는 특별한 장면이 연출된다. 농산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쌍방향 시스템으로 원주에 있는 학생들과 삼척, 양구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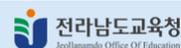
학' 수업을 듣는 것이다. 학교에 상관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로봇소프트웨어 개발, 심리학, 교육학, 경제, 과학 실험, 연극의 이해 등 기존 고등학교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과목들도 학생들의 선택으로 속속 개설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인 '행복고등학교'를 추진하면서 생긴 변화다.

변화의 핵심은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과 중점학교, 소인수선택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올해 1학기에만 10개 시군의 30개 거점학교에서 82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총 1,062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신청했다.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금요일 오후마다 학교 간 이동 버스로도 시범 운영된다. 소인수선택 교육과정도 지난해보다 10개교 늘어난 29개교에서 진행 중이며, 전문성을 강화한 교과 중점학교,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도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강자가 늘고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진로진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원주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교육과정 다양화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은 5점 만점에 평균 4.6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운영근 원주교 교사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라고 얘기했다.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입학식 갖고 힘찬 출발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교장 김을식)가 지난 4월 19일 입학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운영하는 전남통일희망열차 학교는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통일자치학교 형태이다. 지난 3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뒤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 및 합숙캠프 등 엄



정한 평가를 거쳐 총 8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도교사 20명과 함께 사전 캠프 3회, 사후 캠프 2회,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만주·백두산·러시아를 거치는 14박15일의 해외탐방 등 11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올

해는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북녘땅을 경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 후 현장 교원 이용 급증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3월 25일 교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관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 현장 교원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개관 전 3주간 법률·심리 상담 2회에서 개관 후 9일 동안 총 41회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는 학교 현장 교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15회, 복무 등 행정지원 상담 14회, 피해교원 법률상담 9회 등이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장학관(사), 변호사, 상담사 등이 통합적으로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지원하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을 만들어 총 3회 운영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과 피해교원의 치료를 위한 복무 등 행정 지원 상담 등이다. 또한, 신속지원팀은 협박 피해교원을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위치추적 장치 및 순찰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해학교에 학교-경찰 연계 SOS벨 설치도 추진하여 교사 신변을 보호하는 등 통합(ONE-STOP) 지원했다. 많은 교원이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

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고유 권리로, 역사적으로도 학교가 생긴 이래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최근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치유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경남 지역 교권침해 피해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학부모 및 학생에게도 교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대표번호는 1811-7679 (치유친구)다.



소담초,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학교 캠프 진행

세종 소담초등학교(교장 황미애)가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학교 캠프를 진행했다. 소담초 아버지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학교에서 즐거운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에 귀가하는 일정으로 이뤄졌다. 학교 강당에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 몸으로 노는 '아빠랑 놀아요' 시간에는 아직 학교에 적응 중인 1학년 새내기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아빠와 놀이시간을 통해 자녀들은 친구들과도

더 친해지고 더불어 아빠들도 서로 인사하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저녁 체력 프로그램 시간에는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과학실, 실과실, 음악실, 미술실에서 각각 특색있는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나누어 주

는 활동을 했다. 오윤재 소담초 아버지회 회장은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소담초 아버지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남형 메이커교육'으로 창의융합 인재 육성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022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충남형 메이커교육'을 추진한다.

충남형 메이커교육은 △메이커교육 환경 구축 △프로그램 개발 활용 △교육 역량 강화 △공유와 나눔 문화 확산 등 4개 영역 3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도내 14개 시군에 교육지원청 단위의 메이커교육센터를 구축하는 데 23억 원을 투입한다. 센터에서는 마을 교육공동



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메이커교육을 추진하며, 찾아오고 찾아가는 메이커교실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협업적 창작 공간으로 구성된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전 지역에 메이커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재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식 활용 능력을 키워 갈 수 있다.



장 보고, 흥정하고... 신용초의 색다른 전통시장 체험학습

신용초등학교(교장 박철신) 5학년 180여 명 학생들이 지역 전통시장인 대인시장에서 색다른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만 오는 체험학습이 아닌, 전통시장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도 직접 사고 흥정도 해보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우리 실생활 속에서 거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원리를 체험하고, 삶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의 의미도 되새겨 보았다.



이번 체험학습은 시장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조별로 3가지의 미션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대인시장 구석구석의 명소와 숨바꼭질 벽화를 찾는 미션부터, 시장에서 만나는 특이한 식재료 찾기, '오천 원의 행복' 등으로 이

뤄진 미션은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특색 있는 활동이었다.

특히 '오천 원의 행복'은 학생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주고 사전에 작성한 구매계획서를 바탕으로 저녁식사에 사용할 식재료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는 미션이었다. 이후 가정에서 식재료를 사용해 부모님과 요리를 하고 인증 사진을 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바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돼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전통시장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직접 시장에서 사전 계획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고 요리를 직접 하게 돼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 닫은 회동초, 교육체험장 '회동마루'로 재탄생



지난해 문을 닫은 부산 금정구 옛 회동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체험장 '회동마루'로 다시 태어났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4월 3일 교육청 관계자와 시의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마루 개관식을 가졌다. 회동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회동마루는 1~2층에 영양교육체험관, 3~4층에 창의공작소를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양교육체험관은 영양(NU)편의점, 식품안전 119, 맛나버스 등 9개 체험부스로 이루어졌다. 한식관, 키친스튜디오, 키즈쿠킹클래스, 영양상담실, 영양카페, 야외기능성 텃밭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영양체험, 조리실습, 텃밭 가꾸기 등으로 초등학교생에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는 자유학년(기)제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로봇, 하이테크실, 메이커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춘 창의공작소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목공, 천, 재활용품 등을 활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디지털 창의수업'과, 3D프린터, 3D펜, 레이저커팅기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하이테크 창의수업'이 이뤄진다.

회동마루는 이미 올해 연간 이용 신청이 완료될 정도로 일선 학교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양교육체험관에서는 학생들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균형잡힌 식습관을, 창의공작소에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㉔



NEWS BRIEFING

2019. 05.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에 고3 학생부터 시작된다. 내년에는 2, 3학년 학생으로 늘어나고,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4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르면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소요예산은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 기준 매년 약 2조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3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대학, 수업·평가·기록을 함께 이야기하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 3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630명의 고교 교원과 입학사정관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 학생의 성장을 위한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첫 원탁토의는 지난 4월 4일 경기권역(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대학·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한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였다. 올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원탁토의를 마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원탁토의는 고교와 대학이 함께 학생 성장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향후 학교 교육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상호 간의 실천과 촘촘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이 개선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하게 된다.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한다.

발달장애학생 사회진출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기관들과 협력해 '2019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전 교육과 현장 직무지도를 담당하고,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할 사업체를 발굴하여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직장예절과 직무습득을 현장에서 돕는 훈련지원인을 배치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학생당 매주 집합훈련 1회와 3회의 현장훈련을 최장 3개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중장기(19~22) 활성화 방안'을 수립, 장애학생 취업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소폭 증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정시모집 비율이 소폭 증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419명 감소한 34만 7,447명이다. 이중 정시모집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3%로 8만 73명, 수시모집은 77%로 26만 7,374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며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증가한다. ㉠

디지털 혁명시대,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

최근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과거의 변화와 달리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Schwab(2016a; 2016b)은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으로 디지털 혁명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하였다. 디지털 혁명의 도래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소품종 대량생산의 공장형 구조를 갖춰 사회 발전에 비해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정제영, 2018). 우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미래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를 포함한 새로운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새로운 역량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준거로 제시되고 있다.

미래 핵심 역량의 논의

20세기 후반부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를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OECD의 핵심 역량 연구인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OECD의 PISA가 지향하는 장기적 관점의 평가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역량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미래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인간상은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하지만 여전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와 미래교육

유네스코(UNESCO)의 ‘교육 2030 아젠다’는 정보통신 기술(ICT)의 습득과 기술 습득을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들이 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상당한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사이버 괴롭힘이나 온라인 범죄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윤리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시민들이 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성과 다르다. 청소년들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성의 인식

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다. 디지털 시민성은 언어, 수학, 학습 및 문화적 인식과 같은 다른 역량을 배양하는 중요한 도구다(Ferrari, 2013). 기존 교육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교육의 변화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방콕에서는 선도적으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함께 ‘DKAP(Digital Kids Asia Pacific)’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DKAP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가 정책과 노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국가적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KAP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디지털 시민성은 5개 영역의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둘째, ‘디지털 안전과 회복’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셋째, ‘디지털 참여’는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와 공평하게 상호작용하고 관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넷째, ‘디지털 감성 지능’은 개인과 대인관계 수준에서 디지털 상호작용 중에 감정을 인식하고 탐색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다섯째, ‘창의성과 혁신’은 ICT 도구를 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미래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를 포함한 새로운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용한 디지털 콘텐츠 창출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탐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디지털 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 ‘디지털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창의적 인재’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기존 교육에서는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이를 우리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정보 관련 교과와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를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포함되고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활동, 평가 등 교육의 전체 영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②

참고문헌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
정제영(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시스템 재설계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4), 49-71.

정제영(2018).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의 시대. 서울: 박영스토리.

Ferrari, A. 2013. DIGCOMP: A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understanding digital competence in Europe. Edited by Yves Punie and Barbara N. BreĐko. Seville: JRC-IPTS.

Schwab, K. (2016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World Economic Forum.

Schwab, K. (2016b).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In Rose G(e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실천 방안

미래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O2O(Online to Offline)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을 수단이나 도구적 관점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경험 변화 매체로 바라본다면, 다소 낯선 용어이지만 ‘디지털 시민성’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실제 최근 3~4년 사이에 많은 나라의 교육 정책에서 디지털 시민성이 논의되고, 소위 리터러시로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다루는 것을 넘어 핵심 역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요 국가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운영 방향

디지털 시민성을 정책에 적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동향을 살펴보면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활용 역량 프레임워크 내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인식 등 시민성에서 언급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은 2017년도에 영국 정부기관합동 정보위원회에서 디지털 역량을 ‘사람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삶과 학습 그리고 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6가지 요소로 ICT

유창성(ICT Proficiency), 정보, 데이터와 미디어 리터러시(Information, data and media literacy), 디지털 창조 혁신과 학문, 커뮤니케이션, 협력과 참여, 디지털 학습과 개발, 디지털 정체성과 웰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디지털 시민성을 연결된 세계에서 갖추어야 할 인성으로 규정하면서, 교육 내용으로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테크놀로지 활용,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이해, 역량 있는 ICT 이용자로서의 책임과 윤리, 안전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인지, 순기능 촉진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학교 밖 세계와 연결, 문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이용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체제로 공공 기관 성격의 미디어스마트 센터를 2012년도에 설립하여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와 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적 차원, 즉 시민성을 우위에 두고 디지털 활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 교육 문화부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새로운 교육과정에 멀티 리터러시(multi literacy)와 ICT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포함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멀티리터러시는 핀란드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전통적인 학습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아우르면서 기술과 미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적용, 생산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 시민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각 나라의 교육 철학과 관련이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조하

최근 3~4년 사이에 많은 나라의 교육 정책에서 디지털 시민성이 논의되고, 소위 리터러시로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다루는 것을 넘어 핵심 역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는 관점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초연결, 초지능화되는 사회 변화에 그동안 학교 교육이 간과해 왔던 디지털 사회의 필수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성, 시민교육 관점에서 디지털 활용 역량을 포함시키는 방향은 목표가 일치하는 관련 교과, 활동과의 융합의 용이성을 염두에 둔 전략 차원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교과나 영역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민성 제고 교육과정 실천 방안

주요 국가에서 다루어지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교육과정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요소를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개념적으로만 명시된 지식정보처리역량 정의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주요 국가의 추진 방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국가 차원의 실천 의지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와 전략 및 자료 개발이 비영리단체, 위원회, 전문가 워킹그룹, 공공기관(필요에 따라 새로 설립)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와 현장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성과 관리까지 포함하여 현장 중심 실천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한다.

셋째,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별도의 교과나 시수 확보가 아니라 융합교육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다루는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연구하고, 필요한 학습계획안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성 학습계획안 개발 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원하는 것을 고려한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훈련과 반복을 토대로 교사들에게 익숙한 경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식, 기능, 태도를 아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현직, 자격연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늘 제안되는 내용이지만 교대, 사대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시민성 제고를 목표로, 필수 역량으로 대두되는 디지털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국가적 실천 의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의지는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원 체제가 먼저 구축되어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이루어지는 현장 적용 과정에서 촘촘한 시행 전략이나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학교마다 각기 다른 전략과 시수 등을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실천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②

참고문헌

김봉섭 외(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대한 탐색.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외(2016).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 빅픽처 연구. 서울·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선아(2018).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논의 및 과제.” EduNEXT10. 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인가? 17-43.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Anita Low-Lim(2018).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탐색”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149-172.

Frau-Meigs, D., O’Neill, B., Soriani, A., & Tomé, V.(2017).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Overview and new perspectives. Council of Europe.

KERIS(2015). 교육정보화 글로벌 동향 2015. 9. 2호(통권36호).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우리 아이들, 마을과 함께 키운다]

‘나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워킹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지막에 꼭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돌봄이 단순히 야간까지 보육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아이의 성장과 발달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본 느낌이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춰 교육도 변해야 한다. 학교돌봄,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돌봄 생태계 구성은 중요한 가치이므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모니터단 이한울

[삶과 교육-공진하 한국우진학교 특수교사]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더욱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었다. 사실 장애 학생은 현실적으로 많이 다르고, ‘학교를 졸업하면 과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일반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재촉한 것을 반성하게 됐다. 장애 학생들이 늘 존중받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모니터단 김민조

[교사상담실-가깝고도 먼 학부모 상담!]

교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들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위한 한 팀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월호에 실린 내용은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길잡이였다. 훗날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터단 이유경

EVENT

5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선생님’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3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장주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김혜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신다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61번길

발행일 2019년 5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최민석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양지선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스무살 직장인, 너의 선택을 믿어!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해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졸취업

목표

직업계고 취업자비율 60% 달성('22년까지)

취업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취업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취업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중심의 직업계고 학과개편 추진 ■ 산업현장전문가의 교원 자격 취득 확대 등 직업계고 현장성 강화 ■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등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각 학교에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 대학별 재직자 맞춤형 전담과정 마련

목표



“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
”